

목회논단

# 복음이 실재되게 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개념은 우리에게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영원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원은 두 가지 영역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첫째, 시간의 개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시간 개념은 우리 인간들이 편의상 구분 지어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의 시간은 끝도 없는 과거와 끝도 없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끝도 없는 과거와 끝도 없는 미래에서 10년이면, 100년이면, 1000년이면 인간의 시간으로는 긴 선이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에서는 모두 점이요 한순간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원의 개념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언제 실제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의 시간 속에서 오늘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둘째, 공간의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이 깨지면 공간의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로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시간의 개념을 빼게 되면 서울이 부산이고, 부산이 서울이 됩니다. 공간의 개념이 없어집니다.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으로 영원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도깨비’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설정은 도깨비가 영원히 죽지 않는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도깨비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충족시키는 장면

이 있는데 한국에서 문 하나를 열었는데 캐나다에 가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아서 다른 머물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라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믿음의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임을 밝히셨습니다. 신약에서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문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나는 2025년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나 실제 사건이 될 수 있는가?  
영원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십자가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이 문장의 헬라어 시제를 보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완료형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과거 2000년 전 십자가의 현상이 영원 속에서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는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함께 부활이 실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의 소속 역시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천국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지만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예수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을 들어 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2:14-16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저 사람에게에는 생명으로 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의 향기보다는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냄새가 나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실재한 사람에게는 작게나마 생명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신 그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을 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실재가 되었다는 것은 내 죄가 사함을 당할 만큼 크다는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수없이 간음했고, 수없이 살인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은 사형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저야 할 십자가가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힘든 일을 하라는 말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실재로 저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죽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아놓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 향기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들어봅니다.  
죄는 영어로 SIN입니다. 가운데 ‘I’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를 들어내고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나 중심이 되는 죄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내가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가 실재가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넓은 문을 찾는 것 같습니다. 종교 활동만 하려는 사람이 늘어 갑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1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정말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자만이 함께 부활합니다. 그리고 함께 부활한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게 됩니다.

고원영 목사  
경안교회

## 만성 폐쇄성폐질환

담배 피우는데 기침 잦고 숨쉬기 힘들면 ‘이 질환’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담배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쉬우나 이들 중 일부는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일 수도 있습니다.  
\* **만성 폐쇄성폐질환이란?** 만성 폐쇄성폐질환은 숨 쉴 때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폐 기능이 저하되는 만성 염증성 폐 질환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진행성 질환입니다. 적절히 관리하면 증상이 호전되고 관련 질환 발생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환자는 300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적정 치료받는 환자는 3% 미만에 그칩니다.  
\* **주요 증상**은 기침을 동반한 가래가 특징입니다. 흔히 호흡곤란, 기침, 전악성 가래, 쉼뉘기(천명)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각한 폐 손상이 발생할 때까지 증상이 없을 때도 많습니다. COPD 환자는 갑자기 병이 악화될 위험이 높고, 열과 함께 가래 색깔이 변하는 호흡기 감염 증상이 나타되면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숨 쉴 수 없거나, 입술이나 손톱 바깥이 심하게 파래지거나 청색증,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의식이 흐릿해지면 즉시 집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외래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왜 위험한가?** COPD 환자는 감기·독감·폐렴에 걸릴 위험이 더 큼. 호흡기 감염은 호흡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으며 폐 조직에 추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COPD는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과 폐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폐로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고혈압(폐고혈압)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생체 우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 **원인과 예방법?** COPD는 대부분 장기간 흡연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흡연자가 COPD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흡연 외에도 직업적 유해 물질 노출, 대기오염, 실내의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 유전적 요인, 폐 성장 부족 등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해 발생합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담배를 즉시 끊는 것입니다.

COPD는 대부분 흡연과 직접 관련이 있다. 계속 담배를 피우면 증상이 점점 악화된다. 또 호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독감과 폐렴 백신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 **어떻게 치료하나?** COPD는 환자의 증상과 지난 1년간 급성 악화 횟수를 기준으로 중증도를 분류한다. 치료에는 흡입용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한다. 일부 환자에게는 두 종류 기관지확장제를 병용하면 호흡곤란 증상 개선, 폐 기능 향상, 급성 악화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황사와 섞여 오는 미세먼지와 조미세먼지를 조심해야 한다.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들은 생활 속에서 공기 청정기 가동, 실내 환기, 대기오염 정보 확인, 대기오염 지수 높을 때 외출 자제, 꾸준한 흡입기 치료 등 5가지 행동 수칙만 잘 지켜도 증상 완화를 막을 수 있다.  
5가지 행동수칙을 지킨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COPD 삶의 질 테스트에서 9개월 후 평균 1.2점 감소했지만 일반치료를 했던 그룹은 2.7점 높아져 증상이 악화되었다.  
COPD 평가 테스트 역시 점수가 낮아지면 환자들의 삶의 질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COPD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려는 생활수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질병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  
일신 중에는 미세먼지 노출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된 산모는 혈압상승과 중성지방 및 임신성 당뇨병이 증가세를 보였다.

조성구 원장  
한사랑병원

# 제31회기 예성전국교회 교역자 사모수련회

**주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시편 16:8)

**일시** 2025. 4. 21.(월) 오후 2시 ~ 23.(수) 2박 3일

**장소** 곤지암 소망수양관 ☎ 031)764-6052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진압길122-83

**대상** 예성 전국교회 목사 사모, 전도사 사모

**회비** 개인회비 없음

**주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전국교회 교역자 사모회

**준비물** 성경, 찬송, 개인 세면도구(수건, 치약, 칫솔, 비누, 샤워타올), 개인 상비약, 개인 텀블러

**후원계좌** 국민은행 533301-01-069949  
예금주: 예성사모회

**후원**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성결대학교/성결교신학교/예성부흥사회/여전도회전국연합회/성결대총동문회

**홈페이지** cafe.daum.net/jspw

**문의** 사 모 회 분 / 010-3535-4662  
회장 방은실(영광교회 010-4149-4245)  
회계 이진아(신월동교회 010-2615-9368)

**수련회 시간표**

	4월 21일(월)	4월 22일(화)	4월 23일(수)
5:30~6:00		기상	
6:00~7:00	새벽예배1 설교: 고원영 목사 (영광교회)	새벽예배2 설교: 조성구 목사 (한사랑교회)	
7:00~9:30	세면 및 아침식사와 휴식		
9:30~10:00	찬양		
10:00~12:00	특강 <b>사랑의 열매</b> 강사: 김성민 목사 (영광교회)	파송예배 강사: 유우열 목사 (예성사모회 지도교원)	나눔과 축복
12:00~14:00	접수 및 방 배정	점심식사	점심식사(12~13시)
14:00~16:00	개회예배 설교: 김관수 목사(중앙교회) 격려사: 권순일 목사(영광교회) 축사: 성영태 목사(영광교회) 축사: 고영목 목사(영광교회)	자유시간 (14:00~15:00) 마미릴립기도회 (15:00~16:00)	지역지부 (13:00~)
16:00~17:30	순례인 목사 찬양팀(영광교회)	총회	
17:30~19:00	저녁식사	찬양	
19:00~19:30	찬양		
19:30~21:00	심리부흥성회 강사: 김원재 목사(우리교회)		

**회장**

방은실 사모  
영광교회

**직전회장**

이혜림 사모  
비전교회

**1부회장**

한현숙 사모  
수남말교회

**2부회장**

김진아 사모  
영광교회

**1총무**

조남순 사모  
부평성교회

**2총무**

김명화 사모  
영광교회

**3총무**

김영미 사모  
총회본부

**4총무**

이혜복 사모  
청신성교회

**서기**

이영실 사모  
영광교회

**부서기**

도금숙 사모  
영광교회

**회계**

이진아 사모  
신월동교회

**부회계**

서현정 사모  
사미리성교회

**예성전국교회 교역자 사모회**